

비만·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건강 토론회 열어

[쿠키뉴스 2006-05-02 10:42]

[쿠키 건강] 비만·아토피·천식·알레르기 등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학계, 민간단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에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학계·시민단체 및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이건강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아이들 건강과 먹을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정책·학교교육 혁신방안, 어린이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 정책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관리, 교통안전관리, 추락 익사 등의 안전사고 관리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역점을 뒀다.

하지만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만 등 새로운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양화 복잡화되는 위협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향과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중이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건강과 관련한 범 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 의료, 디지털 문화, 학교체육 및 급식, 환경농업, 식품안전 및 식품광고, 시민운동 등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개별부처 위주가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채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정기수 기자
‘guyer73@mdtoday.co.kr’